

보도자료

- =====
- 발 신 :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(퇴진행동)
 - 수 신 : 각 언론사 정치, 사회 담당 기자
 - 배포일 : 2016년 11월 20일(일)
 - 담당자 : 언론팀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(010-4731-4045)
-

부실수사로도 공모 인정, ‘피의자’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!

- 검찰의 뇌물죄 누락 부실수사 규탄한다!

오늘 검찰이 박근혜-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. 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을 구속 기소하면서,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“ ‘공모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” 고 밝혔다.

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범죄의 ‘공범’ 이자 ‘피의자’ 가 되었으며, 국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을 겪게 되었다.

또한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‘권력자와 재벌 봐주기’ 의 전형이다.

검찰은 발표에서 마치 재벌들이 권력 실세의 요구에 팔이 비틀려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.

과연 재벌이 피해자인가? 지난 박근혜 정권 4년간 재벌들은 이 정권의 친재벌, 반민중, 서민증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은가! 일반하고, 파견노동의 전면 확대,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부문 민영화와 성과퇴출제 도입, 재벌만을 위한 FTA 등 통상정책과 농민희생,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 방치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몰락, 끝없는 묻지마 개발에 따른 빈민 탄압과 환경파괴 등이 이 뇌물과 어찌 무관하다고 할 것인가!

결국, 이번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,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이다. 그리고 그런 부실 수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!

이제 더 무엇이 필요한가!

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!

언제까지 국민들이 무자격, 무능력, 범죄자 대통령의 버티기 놀음에 고통받아야 하는가!

불소추특권이 대통령직을 방패로 버티라고 있는 것인가!

부끄러움이라는 게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퇴진하여 “성실히”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!

끝끝내 버티고 버텨 국민에 의해 직접 끌려나오고 싶다면 어디 한 번 그렇게 해보라!
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,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!

2016년 11월 20일

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